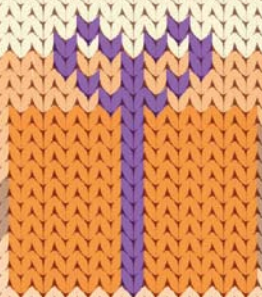


마법

12

2019
통권 551호

대림절 · 성탄절 특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누리에!

우리 교회와 CTS기독교TV가 공동주최한 '2019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지난 11월 16일(토) 오후 5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점등식에선 김운성 위임목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2:8~11)'이란 제목의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높이 20미터, 지름 8미터의 서울광장 성탄 트리는 내년 1월 2일까지 불을 밝히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의 빛을 온누리에 비출 예정이다. (관련기사 52면)

사진 이미혜 선임기자, 이상현 기자



표지설명



추운 겨울이지만 예수님
사랑처럼 따뜻한 느낌을
담아보려고 손뜨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일러스트 윤진경 편집위원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만남

C O N T E N T S

이달의 말씀

말씀을 보여주는 삶- 이대를 위함이라 | 김운성 02

대림절·성탄절 특집 말씀의 성육신

섬김을 즐기자 | 이만식 05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 김충섭 08

교회 창립 74주년 특별기고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생명호 | 김태영 10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전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 박지운 12

생명대각성, 우리들의 한 줄 간증 14

다음세대

공허한 믿음 채워준 가정예배 | 김경석 16

합격은 축복, 불합격은 은혜 | 베드로부 18

삼일운동·임정수립 100주년 사역 |
백성우·조지혜·강명석 20

땅끝까지 이르러

네팔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업 | 김내영 25

인도 선교의 이해와 도전 | 정연수 28

영락의 울타리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구역 식구 | 이영희 32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 이혜영 34

2019 기억, 그리고 의미 | 우대권 36

야곱의 우물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은경 37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 김주미 38

봉사와 섬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 이재향 40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한 제언 | 자원봉사부 42

교회의 원칙과 질서를 준수하는 서무행정 | 서무부 43

문화광장

저녁기도로 드리는 교회창립 감사예배 | 백정진 44

아기예수 탄생 의미 되새기는 성탄 영화 | 박선이 46

시몬, 제3의 길을 찾은 사람 | 박정관 49

12월 영락문화공간 50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51

2019 대한민국 성탄축제 외 52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12월 목회력 / 편집장 레터 60

2019년 12월호 통권 551호

발 행 2019. 12.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아이엔디아이



김운성 위임목사

말씀을 보여주는 삶 - 이때를 위함이라

일,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 생각하니, 더 심각해지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성육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탄의 계절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제 평생에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겨 주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나이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대어섯 살 무렵의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보따리로 연상되었습니다. 좀 더 커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노래하고 연극을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의 성탄절은 친구들과 카드와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거리 곳곳에서 직접 만든 카드를 팔던 이들이 많았고, 그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피곤한 몸으로 성도들 가정으로 새벽송 돌고, 성탄절 아침 예배에서는 즐거가 일쑤였지요.

그랬던 성탄절이 언제부터인지 점점 마음이 무거운 절기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일, 그리고 인생들 곁에서 고생하신

성육신이란 예수님께서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성육신하신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천지창조를 함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서 사람 몸을 입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

삶의 전인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앙이 바로 말씀의 성육신

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육신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사람들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대림절을 지키는 성도가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저 이천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즉 과거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신앙을 국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지만, 그것을 육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라면, 그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는 육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영혼이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영혼과 육신 모두의 전인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신앙은 가장 현실적이고, 역사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가장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동화책에서 보듯 하늘에서 두둥실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구체적인 고난의 역사 현장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

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헤롯 왕 때’라는 시기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헤롯이란 인물이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잃은 채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는 유대인의 터전인 베들레헴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야말로 예수님 성육신의 구체성, 역사성입니다.

우리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의 우리는 강대국들과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다양한 갈등으로 아파하는 대한민국이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을 무시한다면, 말씀의 성육신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속한 교단의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찢개는 능력이 가지고 있고, 처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2020년도 영락교회 표어를 ‘이때를 위함이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표어는 에스더 4장 13~14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모르드개와 아각 사람 하만 사이의 일로 촉발된 위기로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왕비이던 에스더에게도 민족 구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규정을 문제로 망설일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에게 나아갔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 상황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았고, 그 상황은 그에게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회피했다면 그 말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말씀이 성육신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한경직 목사님 20주기입니다. 한경직 목

사님은 자신의 상황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하기 위해 몸부림치신 분입니다. 고아 소녀를 만난 후에 보린원을 시작하셨고, 전쟁 후의 빈곤 상황에서 월드 비전을 만드셨고, 전후의 교육 위기에서 학교들을 복원 및 신설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에 영락의 성도들은 작은 한경직이 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이야말로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대한민국에 두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주신 복을 가지고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에 응답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를 외면하지 말고 돕고, 주님을 모르는 이 역시 외면하지 말고 전도하며, 섬겨야 할 상황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해야겠습니다. 믿음을 마음에 가두면 안 됩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됨으로써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영락이라는 이름만의 자랑이 아닌, 살아서 역동하는 영락교회로 존재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에, 교회창립 74주년에,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만남**

섬김을 즐기자



세 사람의 벽돌공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말로 하면 ‘성(聖)가족교회’입니다. 1882년 바르셀로나 출신의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이 교회는 첫 삽을 뜬 지 1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2035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가우디가 유난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벽돌공이 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니? 벽돌 쌓고 있잖아!”

가우디는 그 옆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다른 벽돌공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몰라서 묻니? 돈 벌고 있잖아!”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뭐가 좋은지 활짝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우디는 앞의 두 사람에게 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세 사람의 벽돌공은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대답을 바꾼 것일까요? 바로 목적의식이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벽돌공은 단순히 벽돌만 쌓는 일을 했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일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목적의식에 따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변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만식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사회대학원

영락교회의 브랜드 가치

제법 오랫동안 영락교회와 관계를 이어온 저로서는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 전체가 영락교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으로 인해 고마워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견해를 떠나 실제 영락교회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논쟁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움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 정도는 돼야 조금은 신뢰를 받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만약 영락교회의 교인이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서 영락교회 교인임을 밝히고 “지금 돈이 없는데 외상 안 될까요?”하고 부탁한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영락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겨왔고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면, 아마 김치찌개를 주문해도 제육볶음까지 주지 않을까요? 저는 영락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이웃을 성실하게 잘 섬기는 교회이며 영락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지역주민 모두에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의 교회론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며 전도만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교회론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도구, 즉 세상을 살리기 위한 조직’이라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쾅 역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공동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를 섬기는 소수이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 이웃을 돕는 교회

미국의 한 종교 연구소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이 내일 교회에 참석한다면, 어떤 교회에 참석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교회에 출석하겠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 교회의 사명과 과제 중에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주민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삶을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원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봉사관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을 섬기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영락교회나 이웃 교회로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섬김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는 당회를 포함해서 절대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둘째, 섬김은 복음의 접촉점이 됩니다. 구세군 교회의 표어인 ‘마음은 하나님에게, 손길은 이웃에

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옥한흠 목사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섬김은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섬김은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직접선교보다 간접선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섬김은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은혜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결심한 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세

이웃을 섬기거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자세가 바람직할까요? 고린도전서 10:31~33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특히 위임목사)의 박수와 갈채가 없어 도 기쁘게 또 꾸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사회복지에서는 낙인감 또는 stigma라고 함)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자단이 NASA를 방문해서 우주 과학자들을 인터뷰하고 돌아가는 길에 수위에게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지고 자존감이 느껴지는 대답입니다. 신앙인들도 설사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나 장애인의 용변을 돕는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즐기는 멋진 크리스천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배우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어 용야편에 "지지자(知之者)는 불여(不如) 호지자(好之者)요, 호지자는 불여 락지자(樂之者)"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섬김에 관해 배우는 것보다 섬김을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습니다. 영락교회 교인들 모두가 섬김을 즐기는 멋진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시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시간은 연속적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가 실체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는 언제나 계속 움직이고 있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 위에 서서, 한 손으로는 과거라는 유산을 쥐고, 또 한 손으로는 미래라는 소망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시간과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 안에 간섭하시며,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시간’과 ‘영원’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중심적으로, 때로는 아주 분명하고 찬란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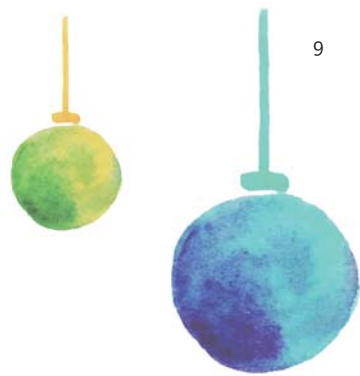
김충섭 목사
안양·수원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이 둘 사이의 시간 (this time between)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의 저서 「교회교의학」에서 “교회 공동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하심과 두 번째 오심(재림) 사이의 시간이다. 공동체는 그의 첫 번째 오심과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하심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간은 이 둘 사이의 시간 (this time between)”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기간이며, 고통과 문제로 점철되어있는 세상은 하나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3쪽



이미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어드벤처(Advent)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 ‘ad’와 ‘venire’ 합성어로서 ‘오다’(to come to)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성육신)과 다시 오심(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축하하고 준비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12월에 지키는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며, 이 기간에 우리는 다시 오셔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는 대림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심을 축하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마라나타”를 고백해 왔는데, 이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께서 이미 오셨다는 믿음과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

절 안에서 이미 오셨던 그분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즉 우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동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계 21:6), “시작과 마침이라”(계 22:13)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는 대림절 메시지는 두려움과 약속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소망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며, 시작과 끝이 만나는 다차원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상업화되고 세속화되는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재현하고 준비하는 대림절을 통해 초대 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한 손을 뻗어 과거를 잡고, 또 한 손을 뻗어 미래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동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들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만남**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생명호·구원선이 되어주길



김태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장
부산 백양로교회

우리 교단의 자랑인 영락교회가 창립 74주년을 맞이한 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영락교회는 북한 김일성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하신 분들과 또 6·25 동란 때 피난 온 분들을 중심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로 한국 근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분단과 이산의 고통을 신앙과 애국심으로 승화하여 조국을 사랑하고 경건과 신앙의 본이 되는 명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모범적인 목회를 하셨고, 특히 한국 교회 연합과 학원·군 선교 등 특수기관 선교에서도 개척자의 심정으로 부흥을 주도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통합교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상징적 인물이셨으며, 국가적 난제가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며 권면하던 국가의 정신적 지



도자였습니다. 귀한 목사님의 자취와 흔적을 가진 교회답게 좌우에 경도되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생명의 줄을 던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호’, ‘구원선’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부산에서 모범적인 목회를 하면서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제게는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김운성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의 정신을 잘 계승하실 분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잃고 주춤주춤하는 한국 교회는 지금 김운성 목사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운성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이 아닙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목회생태계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열거된 1세기의 26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락 교우들께서 ‘김운성’을 ‘김운성’ 되게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당부합니다. 목사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떠난 후 주님의 이름만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남』은 제가 신학교 재학시절 수요일예배 때 가끔 영락교회에 와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면서 한 권씩 가지고 갔던, 당시로서는 아주 귀중한 설교 자료였고 지금도 여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아가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기에, 사람이 말씀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지가 쏟아지지만 사랑받는 월간지가 되어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읽을거리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저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그 근원을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락 교우 여러분!

이 시대에 존재 자체가 권위가 되는 영락교회, 거룩함이 힘이 되는 영락교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는 영락교회, 혼란한 시대에 등대가 되는 영락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와 국가의 성벽재건 현장에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섬겨 주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 심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인 영락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만남**

전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전도부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열심히 전도하며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주 명동 거리로, 을지로역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분들과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정성을 다해 전도폭발훈련에 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 한 해도 벌써 군 전도를 통해 많은 장병이 복음 전도를 받았고 영접했으며 13여 개 병원에서 5500여 명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전도하는 분보다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여러 모양의 봉사, 신앙의 교제 등을 나누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특정한 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따

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전도 명령에서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기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대각성운동’ 중에 있습니다. ‘각성’이라 함은 어느 날 불현듯 어떤 이치를 깨닫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무지몽매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몽주의적 깨달음도 아닙니다. 이 각성은 잠에서 깨어남(Awakening)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구령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는 영락의 모든 성도에게 특별한 기간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온 교회가 힘을 쓰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박지운 목사
전도부
서대문·은평교구

기쁨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운동에 영락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대각성운동'에 영락의 모든 성도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생명 초청의 행진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한 줄 간증문'에 그 역사가 하나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구역 식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30년을 기도해 오던 대학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유인도, 병상에 계시던 분도, 직장의 상사와 그들의 자녀도 함께 영락교회 뜰을 밟았습니다. 무녀를 하시던 분도, 길에서 다투던 분도 전도해 교회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그로 인한 결실의 큰 기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초청해 함께 오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전도 부스에 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기념품과 교회 소개 책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청해 오신 분께도 기념품을 드립니다. 초청에 응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번

방문하셨더라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드리기 위함이니 부담 없이 오셔서 받아 가시고, 방문 인원 계수를 위한 간단한 방문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기념품을 받지 않더라도 방문카드를 기록해 주시면 교역자와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한 줄 간증문'에 같이 적어 주시면 그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 구원 사명에 영락의 모든 성도가 참여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남**



생명대각성, 우리들의 한 줄 간증

성령님께서 교회 문턱에 들어오기 어려우셨던 세 분의 시댁 식구를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양○○

몇 해 전에 오래전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제시하고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예배를 드렸었는데, 금번에 다시 초대하려고 만나니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 조○○

대학 친구를 위해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신○○

상처받아 마음이 아플 때 예배드리러 왔는데, 낙심하는 그 순간 다시 기도의 힘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 ○○○

하나님께서 병환 중의 장모님께 역사하셔서 불교 신자였던 장모님과 처제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회심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간구합니다. - 한○○

초청한 자유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세주 십니다.” - 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5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핍박하던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로 9월 1일 4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 김○○

이모와 이모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주신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

단골 미용실의 디자이너를 위해 1년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드디어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아들과 딸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의 예배 참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황○○

먼 곳에서 온 반가운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 원○○

공무원 재직 중인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도 중에 교회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5부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 강○○, 홍○○

무녀인 지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은혜입니다. - 서○○





생명대각성 주간의 새벽기도
회에 말씀 배우러 나오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다투는 장
면을 목격했습니다. 다투는
이들을 말리던 중, 저 분을 전도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 문○○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구하며, 그가 전도자가 되어 남자친구에게
새 생명의 구원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이○○

마음으로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
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입을 열게 하시
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 곽○○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하며
궁금히 여기던 일이 있었는데, 기도대각성운동
기간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응답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주님!
- 이○○

뉴질랜드에 사는 김○○ 권사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 원○○ 전도사님의 인도로
영락교회에 와서 3달 동안 말씀의 은혜 속에
젖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주님의 사랑 안에서 20년 동안 마음에 품
고 기도했던 동생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곽○○

중등부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대학 입시 준비
등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던 딸아이가
교회로 어렵게 발걸음했습니다. ○○이가
대학부 예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김○○

어리석은 판단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잘 다스려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최○○

결혼한 딸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근교로 이사
와서 사위, 딸, 손녀가 함께 4부 예배를 드렸
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 황○○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니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 현○○

남편이 자발적으로 금요철야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가정 예배에도
가끔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해주시니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

지난 주일 교회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는데,
작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걷는
데에 지장이 없어서 간단한 치료 후에 예배드
리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양○○

공허한 믿음 채워준 가정예배 두 아이도 ‘하나님 자녀’로 쏙쏙

- 제3기 가정예배학교 참여 후기

김경석 집사
종로·성북교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와 아내는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리더로 함께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두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분주함과 회사의 바쁜 상황 등 이런저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현장인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보내지만, 저마다 다른 스케줄로 인해 분주한 가운데 제속에 남겨진 믿음의 공허함과 가정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함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도 가정예배학교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권유를 했지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3기 과정에 간절함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가정예배라고 하는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신형섭 교수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전하시는 가정예배학교는 8주간 진행됩니다. ‘부모의 회심과 정체성 갖기’로 집의 터를 닦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자녀들의 연령대별 이해’를 통해 집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집의 벽돌을 쌓고 ‘가정 안에 거룩한 기억과 교제의 공간 만들기’ 등 기독교 문화 심기를 통해 집의 지붕을 덮고 가정예배의 집을 완성함을 배웠고, 이제는 가정예배를 디자인해 세워가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배우는 중입니다.

가정예배학교를 통해 저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신앙형성

과 변혁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곳이 가정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학교만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경험하는 교육의 터전이라고 알고 있던 내 안의 무책임한 자아도 철저히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인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귀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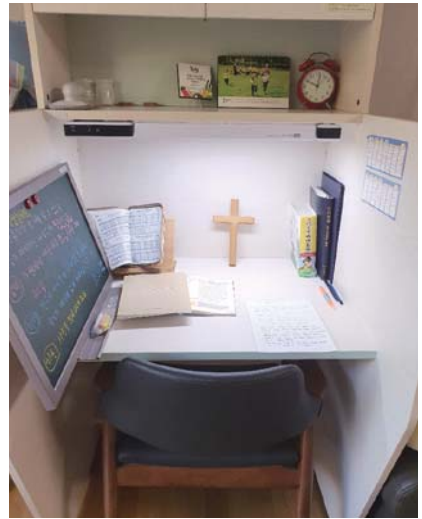
“공부 잘하는 아이 욕심 내던 책상
가정예배 ‘거룩한 공간’으로 바뀌
묵상과 기도로 매일 아침 열어”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고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말로 가정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와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 하루 동안 우리 삶에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감사 기도가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감사, 즉 하나님 응답의 가장 완전한 답인 예수님과 현재형으로 동행하며 가는 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삶 전체를 드리는 기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학교의 미션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우



김경석 집사 가족. 큰아이의 공부책상(사진 오른쪽)은 '거룩한 기억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리 가족의 '거룩한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과제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곳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제 욕심으로 만들었던 큰아이 책상을 가정예배의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공간은 원래 세상 관점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하민이가 뜻하지 않게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욕심이 앞섰습니다. 독서실 책상을 사주며 그 책상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기를 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정예배학교의 '거룩한 기억의 공간'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며 하민이의 책상을 우리 가족의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공부 목적인, 양옆이 막힌 독서실 책상을 치우고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책상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내도 오전 중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해주신 화답을 기록해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예배를 어떻게 시작할까? 내가 과연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염려하시는 분들을 가정예배학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가

정예배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가정예배학교에서 배우고 받은 은혜를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 제3기 가정예배학교 커리큘럼

주차	내 용
1주차	가정예배 세우기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2주차	가정예배 세우기 2단계 “가정예배 기동 세우기”
3주차	성경적 결혼과 거룩한 대화
4주차	가정예배 벽돌 쌓기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가정예배”
5주차	가정예배 지붕 덮기 “은혜의 공간 창조하기”
6주차	일터를 소명의 자리로 세워가기
7주차	거룩한 대화, 행복한 가정
8주차	가정예배 설계하기 “실제적 가정예배 디자인 하기”

합격은 축복, 불합격은 은혜

- 창립 30주년 맞이한 베드로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베드로부

베드로부는 수능에 재도전하는 '재입시생을 위한 예비 공동체'입니다. 1990년 12월 교사 1명과 학생 3명의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벌써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일 중 아마도 처음 겪는 큰 시련일 것입니다. 재수 생활은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든 광야 훈련입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이 직접 홀로 견뎌내야 하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부는 함께합니다. 베드로부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의 마음과 생활

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새로이 다짐할 수 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에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재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재수생 사역을 30년째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부에 새로이 오는 학생들은 누구나 이중 삼중으로 보살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부의 특별함은 예배 후에 이뤄지는 조별 모임 및 애프터에 있습니다. 교역자를 비롯해 베드로부 총인원 중 실제 입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교사나 선배들입니다. 담임, 부담임, 조장 3인이 한 팀이 되어 한 개조를 담당합니다.



2017년 베드로부 수련회(영락기도원). 베드로부 예배는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린다.



교역자와 교사, 선배로 이어지는 양육체계

목사님이 맞춤형 설교와 신앙지도로 인도하시고, 주로 직분자로 이루어진 담임선생님들은 조별 모임을 인도합니다. 부담임과 조장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1년 동안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베드로부 출신인 선배들은 누구보다도 재수하는 후배들의 상황을 공감합니다. 진로, 입시 등 주로 학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상담하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8시 30분 기념관 503호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조별활동 및 식사를 하면 10시 40분 정도에 공식 일정이 끝납니다. 그 후에는 조별로 선배들이나 선생님들과 애프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 선배들의 멘토링과 격려 등이 한데

어울려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부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홈커밍 파티

이제 청년의 시대에서 장년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된 베드로부에서 12월 7일 오후 6시 50주년 기념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홈커밍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베드로부에서 광야 훈련을 거친 후 대학으로, 사회로 진출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1,500여 명의 베드로부 선배와 선생님, 교역자님, 그리고 베드로부 학부모임을 초청합니다.

전세대와 현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으로서, 앞으로의 성숙한 베드로부를 열어가는 뜻깊은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남**

제공 베드로부

* 베드로부 30주년 기념행사에 상영 및 전시될 추억의 사진을 찾습니다. peterclass3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 전의혁 서기 집사(010-8996-5373)

베드로부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홈커밍 파티

- 시간 : 2019년 12월 7일(토) 오후 6~8시
- 장소 : 50주년 기념관 지하 1층 소강당
- 주제 : 서른, 다시 주님 앞에
- 설교 : 김운성 위임목사

삼일운동·임정수립 100주년 사역

- 청년 '이음 공동체' 상해·북간도 용정촌 비전트립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축하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일으켰던 상해 노산공원(옛 홍구공원) 내 윤의사 기념관 앞에서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이어가는 청년공동체

백성우 목사(교육전담)

2019년 여름 7월, 33명의 청년공동체가 100년 전의 발자취를 찾아 상해로 향했습니다. 팀명은 '이음', 6개 교회와 4개 기독교 대학에서 모인 이들입니다.¹ 백 년 전 1919

년 삼일운동으로 태동한 상해임시정부의 발자취와 이어진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그리고 그 발자취 속에 깊이 담겨 있는, 민족의 동반자였던 기독교회와 복음의 자취를 다시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소속 공동체는 각자 다르지만, 복음 정신이 담긴 민

¹ 소망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잠실교회, 주안장로교회, 창동염광교회, 서울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한남대학교 (이상 교회 및 대학 이름 가나다순)

족 역사를 함께 품기 위해 스스로 '이음'이라 이름 짓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에게 다가서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시작한 모임이 두 달 동안의 사전 워크숍과 교육, 비전트립 준비 및 국내 탐방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6일간의 여정!

세 개의 프로젝트팀(복음정신, 박해환경, 주요 인물)을 스스로 설정해 사전 조사를 했기에 가는 곳마다 프로젝트의 관점으로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상해와 항주 곳곳에 남겨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북간도 연변에서 백두산까지 진행하며 독립운동가의 흔적과 민족 시인 윤동주의 마을도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의 시간을 따라 함께 들고 보며, 서로 질문하고 나누고 기록하는 사이 어느덧 1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날 바라보고 사는 듯한 현시대의 파도 속에 묻어 살아왔지만, 민족에 깃든 복음 정신을 찾게 되면서 어제, 오늘날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

계실 하나님이심을 저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보면 6일간의 여정이었지만, 길게 보면 두 달간의 준비와 실행이 만든 시간이었기에 참으로 '서로 이어지자 했던 다짐'이 실체가 되고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위해 웃고 울며, 마음에 민족과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을 품은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 기간에 주셨던 감격의 이야기와 사진을 담아 책자와 50여 분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책자는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책자와 영상 모두 삼일운동 100주년 사업의 디지털 아카이브(<http://100samil.org/>)에서 12월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행했던 목회자로서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다음 시대를 복음으로 이어섬기는 넓은 품의 기독 청년공동체를 소망하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지도하시고 지원해주신 교회들과 함께한 기독 대학들에 대한 감사과 함께 비전과 경험으로 적극 지도해주신 김운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는 이 비전트립에 영락교회 대표로 참여했던 대학부 벗님 두 명의 이야기와 사진들입니다.

▶ '이음 공동체' 상해 임정 및 백두산비전트립 일정(7/8~13)

일 자	탐방 일정
1일차	인천→항주
2일차	항주 임시정부청사, 김구 피난처 탐방, 상해 외탄 지역
3일차	상해 임시정부청사, 만국공묘 탐방
4일차	두만강 중·조 접경지대, 3.13의사릉, 윤동주 생가 탐방 일송정, 용문교/해란강
5일차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6일차	장춘→인천

‘복음정신’으로 바라본 삼일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조지혜 (대학부 44기·소년부 교사·‘복음정신’ 프로젝트팀장)

스물셋. 많은 사람이 저에게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때라고 합니다. 대학생에게 6일이 주어지면 보통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특별한 6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삼일운동 100주년 <이음> 비전트립’이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이래저래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비전트립이나 전도 여행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저에게,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비전트립은 여느 비전트립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전트립을 떠나기 직전까지 너무 설레고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Who am I?’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문을 듣고 삼일운동 배경과 두 가지의 정체성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고민해봐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각자 프로젝트 조 3개 중 한 곳에 속해 있어서 조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과제까지 수행하려면 생각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박 6일간의 비전트립 일정을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점점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일 차에 눈앞에 펼쳐있는 외탄지구의 모습이 말해주는 조계지의 영향, 그리고 3일 차에 방문한 상해임시정부에서 상해의 교통이 편리한 점, 프랑스의 조계지였고,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임시정부가 있을 수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왜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4일 차에 방문한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삼일운동 100주년의 역사적 순간을 남과 북이 함께하지 못하고 분계선에서 멀찍이 북한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5일 차에 올랐던 백두산에서 중국을 통해서만 백두산을 오를 수 있다는



상해임시정부 기념관 앞에서 민족을 향한 마음을 다짐하며

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의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 정체성 확립을 주도하도록 기회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당시 ‘땅끝’이었을 조선까지 선교사님들을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100년 전에 민족 운동을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100년 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직 완벽한 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과제 ‘통일’이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5박 6일의 소중한 경험을 우리만 품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과 통일 이후를 기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비전트립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전트립 6일은 배움의 시간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늘 주변에 먼 저 사랑을 나눠줘야 하기에, 때로는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 받기에, 허전했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만나서 채워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할 수 있었겠지만,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이 될 '삼일운동 100주년 비전트립, <이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비전트립 일정을 앞두고 많이 설레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진들을 보면 꽤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와의 만남, 그리고 삼일운동 100주년 비전트립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비전트립을 앞두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시고 함께 감사함을 고백한 우리 엄마, 사랑하고 감사해요 ♥

이음, 하나 되는 발걸음

강명석(대학부 41기·영상 촬영 및 편집 담당)

학기 중에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짧은 고민 끝에 가게 된 민족의 동반자 상해 비전트립! 26살 겨울수련회 때 “26살이 지나가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해외여행 갈 여유가 없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은 땅이 가장 넓은 나라이기도 하고, 직접 그 땅을 밟음으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나의 한 눈으로만 보던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했고, 비전트립을 통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인 영상 기술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기대가 참만해 어떤 기독 청년들을 만날지, 무엇을 배우고 돌아올지 정말 설렘 가득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모든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삶을 살다간 민족시인 윤동주의 고향, 중국 길림성 연변의 용정 명동촌 그의 생가 앞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도문강 다리 변경선 끝에서 하나로 이어질 민족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일정과 만났던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소중했고 사랑스러웠으며, 동행했던 33명의 대학 청년들과 불화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었지만,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듯, 모든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정신팀에 속해 있었지만, 영상 팀원으로서 박해환경팀의 촬영을 담당하면서 박해환경에 대한 주제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들 주제 안에 기독교 복음정신과 인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 다른 팀의 주제에도 박해환경과 인물 그리고 복음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의사는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느라 학당을 자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문을 키우며 문맹 퇴치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윤의사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농민독본>이란 책을 써서 농촌 계몽에도 앞장섰습니다. 윤봉길 의사처럼 저 역시 아무리 세상과 교회 사역으로 인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과 세상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의 발자국과 업적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됨'인 것 같습니다. '애국',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마음 안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음, 하나 되는 발걸음'이라는 우리 민족의 동반자 주제가 이번 비전트립에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해'팀과 함께 프로젝트팀으로 활동하면서 팀원 각자가 느낀 점을 촬영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기쁨과 이해가 두 배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박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팀으로 활동했지만, '박해'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설명과 가이드의 설명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다양한 내용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전트립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서 가는 곳마다 찬양, 기도, 감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전트립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곳의 감격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저의 중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체험하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받은 많은 은혜가 식어간다면, 혼자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전 화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촬영이 끝나고 편집을 시작합니다. 다른 청년들에게는 비전트립이 이미 종료된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편집을 하면서 다시 복습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또 하나의 여행이 될지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편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옆 사람과 함께 주변 사람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네팔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업

- 카트만두 어네티쿠쉬 교회 헌당 예배



카트만두 어네티쿠쉬 교회 헌당 예배를 마치고

네팔 카트만두 어네티쿠쉬 교회가 지난 10월 30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네티쿠쉬’는 ‘영락(永樂)’이라는 뜻을 가진 네팔어입니다. 네팔의 영락교회인 셈이지요.

이름만 영락교회와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네티쿠쉬 교회를 시무하시는 레크미 트레스타 목사님은 2007년 영락교회 권사들의 도움으로 아시아연합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교회 선교부 외국인에 배 네팔예배 담당 전도사로 봉사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귀국했습니다.

레크미 목사님은 오로지 네팔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사역은 네팔의 오지에서 카트만두에 찾아온 환자들과 가족을 위한 미션 예배였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네팔에서는 치료를 위해 수도인 카트만두까지 가야 합니다. 이들과 아침저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위로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김내영 은퇴장로
강남교구



레크미 목사와 우사 사모



2층으로 증축된 예배당 전경

어년떠쿠쉬 교회는 2015년 1월에 카트만두에서 조금 떨어진 힌두교 지역 발라주에 설립되었습니다. 레크미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8년 동안 받은 전도사 신수비를 아끼고 절약해 모은 1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 해외 곳곳에서 예배당 건축을 지원받았고 그래도 부족한 자금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30여 평의 1층 건물에 함석지붕을 얹은 교회는 완공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에 네팔 대지진으로 적잖이 피해를 보아서 영락교회 2남 강남지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늘었습니다. 하나뿐인 예배실을 어린이 예배, 젊은이 예배, 준비실 등으로 사용하니 공간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몇 분이 이곳을 방문해 레크미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있을 때 네팔예배부를 섬기던 권사들과 후원회를 조직해 목사님 선교사역을 돕고 기도하자는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레크미 목사님 부부를 서울로 초청해 목사님이 전하는 네팔선교보고 시간을 가지고 ‘레크미목사후원회’(회장 김영옥 권사)

를 조직했습니다. 교회 방문 시 여전도회와 남선교부를 방문해 네팔 선교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목사님은 컴퓨터, 영상, 사진 등을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레크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각종 목회 계획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 교회의 2층 증축을 목표로 레크미목사후원회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크미목사후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증축을 완성해 지난 10월 5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에는 서울에서 은퇴장로 5명, 권사 10명, 안수집사 16명 등이 참석해 모두 120명 이상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층에 마련된 5개의 공간은 어린이 예배와 각종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찬양 준비, 어린이들의 방과 후 학습, 음악 등 훈련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식당과 주방을 설치해 성도들에게 점심이나 차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사모님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헌당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해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방문팀과 함께 드린 헌당 예배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힌두 지역이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동네로, 레크미 목사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전파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신앙 정신을 소유한, 삶을 통해 예수 제자의 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에게 목회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나누려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함께 흘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목회자로서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자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정부 소유 땅을 빌려 처소를 마련해 주어 소작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고 믿음도 자라게 하는 신앙 가정공동체 육성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기도원을 준비해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특히 네팔은 교

통 환경이 열악해서 먼 거리의 성도, 연로하신 어르신, 병약한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승합차 마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힌두교도인 네팔은 2018년 힌두교에서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선교사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지 네팔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목인이 된다고 하지만 목사님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던 선교 형태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에게 신학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교사를 훈련·양성해, 자국으로 파송하는 선교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팔 백성들의 순수하고도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속히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봅니다. **만남**

인도 선교의 이해와 도전

정연수 선교사(인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자 모인 인도 어린이들

영락의 모든 성도께 인도 선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13억 5천만 명이 넘는, 인도의 인구는 2030년이면 약 1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힌두교도(Hinduism)가 79.8%이며, 2억 마리의 소를 숭배하고 3만 3천여 개의 우상을 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구 중 이슬람은 14.5%로, 2억 명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

은 이슬람 인구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외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로 인해 '종교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 인도는 기독교인을 2.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복음화 지역인 인도는 지리적 여건이나 선교적 시각으로 볼 때, 향후 선교에 있어서 큰 변화의 기회가 될 곳으로 예상되기에 많은 선교사의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1. 인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인도 선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 우선 인도의 역사적 상황과 선교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18세기 후반의 인도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악습이었던 사티(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내도 함께 화장하는 제도)나 여아 조혼제도 철폐 등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으로 인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첨병이라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서양 종교나 서구인의 모습으로만 인식하는 관습이 남아있어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인도 토착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회심한 기독교인들에게 영어식 이름을 고집했고, 서구 음악인 찬송가와 서양식 옷을 입게 하는 등 인도의 전통

적 관습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식민주의의 선두에 동역하는 종교로 인식되었고 선교사는 식민지 정부와 결탁해 인도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도에서 서양 선교사가 보여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석은 오늘날 인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2. 인도 선교의 장애와 도전

1) 급속한 인구 증가와 북인도 지역의 미복음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인도 교회는 크고 작은 핍박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전 인구 중 기독교인 비율은 1951년 2.8%에서 2010년에는 2.18%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기독교 인구가 급속한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매달 첫 수요일에 지역 목회자들이 영락센터에 모여 예배하며 인도 복음화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때문입니다. 외국 선교사의 선교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한편, 인도 교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도 정부는 1975년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문을 닫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유능한 현지인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자생력을 가지도록 성장하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인도인들의 선입견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북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북인도 인구가 약 5억 명이 넘지만, 기독교인 비율은 편잡주(1.1%)를 제외하고는 평균 0.1%에 불과합니다.

2) 카스트 제도와 굳게 뿌리박힌 전통 및 관습

인도의 신분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방으로 갈수록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 특유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caste)’는 크게 4개의 계급으로 분류하지만, 하위 카스트로 분류할 경우 3,000개 이상이 됩니다. 지금도 카스트 제도는 결혼을 통해 존속되고 있습니다. 각



성경 지식이 부족한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성경공부



필자(앞줄 오른쪽 앉은 이)와 함께 인도 P지역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

각의 종교 속의 뿌리 깊은 내부 자치제도에는 헌법을 뛰어넘는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3) 힌두-이슬람 갈등과 기독교 핍박, 정치적 상관관계

인도 헌법은 종교 무차별 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14년 총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BJP당(인도국민당)이 집권했습니다. BJP는 민족주의단체 RSS(민족봉사단)를 기반으로 하는 힌두이즘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도 RSS 대표 출신입니다. 모디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경제부흥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로는 극우 힌두세력에 의한 교회 핍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5일 모디 정부는 헌법 370조 폐지를 통해 이슬람교도들의 주요 거주지인 잠무-카슈미르에 대한 헌법상 특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지인 데다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폭넓은 자치를 허용하고 진학과 취업,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부여했던 헌법상 특혜를 없앴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힌두와 이슬람은 불붙은 화약고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전도를 위해 운영중인 재봉교실. 시작 전 기도를 드리고 있다.

4) 헌신하는 사역자의 발굴과 자립이 절실

인도 선교의 자립은 헌신하는 사역자 발굴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전파 2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자립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인도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현지 사역자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3. 인도 선교를 향한 비전

인도 델리에 와서 느낀 것은 마을마다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연합해 더 큰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재봉 교실, 화장실 리모델링, 상하수도 개선, 급식 지원, 마을 청소 등의 사업을 통해 교회가 마을을 더 잘 섬길 방법을 찾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더라도 선교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도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도의 건전한 교단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모 교단과 협력해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 현지 목회자들이 성경공부를 위해 매주 성경공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과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는 더욱 견고하게 힌두교 국가를 만들려 합니다. 선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귀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 선교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락의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구역 식구

선배 권사님의 은퇴로 구역을 맡을 자격도 준비되지 않은 제가 영예로우면서도 책임이 무거운 역할을 맡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식구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심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에게는 전화 심방과 함께 『만남』에 작은 쪽지를 넣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형식적인 역할에만 충실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도움, 특히 선배 권사님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기본적인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겠지요. 부끄러움과 함께 우리 구역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은 구역예배 후 식사와 다과를 함께하며 지난 이야기와 집안 대소사 등에 관한 얘기로 웃음꽃이 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 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립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구역 식구들과 병원 심방도 함께하며 속히 쾌차하셔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구역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찬송으로 응원과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희 권사
강북·도봉교구 43구역장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구역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녀분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도 가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등 구역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구역 일을 볼 만한 젊은 식구들은 직장과 가정일로 구역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만남』을 돌리며 구역 식구들의 집을 방문해도 만나기 어려운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맡은 바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전 대심방이 활발했을 때 권사님들과 같이 심방을 돌며 예배드리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구역 권사님들과 함께했었던 일을 떠올리면 얼마나 든든했는지,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만나면 무척이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며 교회 생활에도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 구역장의 소임임을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으로써 우리 구역 식구들

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만남』을 전달하는 것도 구역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구역 식구들의 우편함에 『만남』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그 덕에 건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구역모임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모임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자 신앙공동체인 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구역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역을 이끌어갈 젊은 집사님들과 저의 뒤를 이어 구역을 이끌어갈 구역장 후보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역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구역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

어린 시절의 나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며 착한 아이(?)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다. 늘 착한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선물을 받았다. 출처를 오해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억이 새롭다.

결혼 후 첫 성탄 음악예배를 드리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데 대형 관광버스가 우리 부부 앞에 멈추었다. 시내로 들어가는데 태워다 주겠다는 기사님 제의에 흔쾌히 올라탔다. 영락교회 성탄 음악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반갑게 태워주셨던 기사님도 이제 와 생각하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구역이 활성화되던 때에는 구역에서도 성탄 예배를 드렸다. 구역의 모든 식구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었다. 구역의 어린아이들은 오랫동안 연습했던 성탄 찬송과 율동을 뽐내며 예수 나심을 기뻐해 모두 하나 되는 축제였다. 그 시절, 자고 있던 나를 깨우시던 엄마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에 참석하곤 했다. 친구들과 뛰어놀던,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예전의 목사님 사택) 앞의 작은 운동장과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림이 걸려 있던 옛 선교관(50주년기념관 자리) 2층 기도실, 고등부 예배 후에 본당 옆의 정원 등나무 아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나누었던 분반 공부, 고등부 학생회 임원들이 등교 전 지도 선생님과 함께 마가복음과 창세기를 공부하며 함께했던 아름다운 정원의 기억이 생생하다.



이혜영 권사
서초교구
예산위원, 평생대학 교사



지금은 평생대학 교사로 섬기고 있다. 평생대학 학생들은 주일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고 하신다.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니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잔소리가 아닌 사랑을 담백 담은 어른으로 살 수 있어 기쁘다고 하신다.

2월부터 시작된 '기도대각성운동'으로 본당 문이 열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다. 지금도 벨엘과 개인기도실, 지역교회와 가정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대각성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달라는 간절함으로...

아스라이 저녁 해가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땅, 산, 바다 등은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건만 인간의 손이 닿는 곳에는 아름다움보다는 냄새가 난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새로움과 만나는 것이다. 타인과 만남에 있어서 삶의 방식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친

밀해지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거나, 알아 가면서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도 있다. 매일의 새로운 예수님 만남 역시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묵상과 공동체를 통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한다. 선물로 주신 구원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훈계와 비난보다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믿음의 성도로 살기 원한다.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2019년 성탄절에도 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은 선물로 기뻐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려놓음의 영성, 경건과 절제와 정결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열매 가득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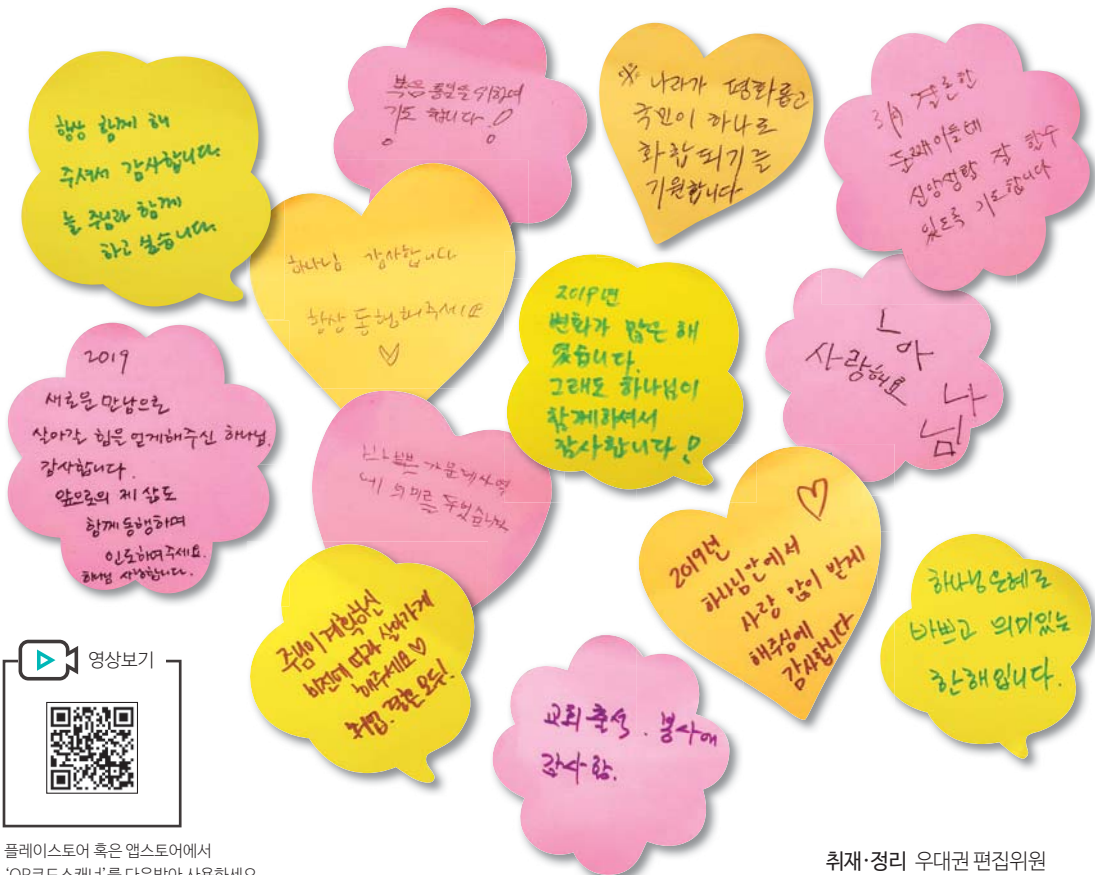
2019

기억, 그리고 의미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길
기도해요.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흥겨운 분위기에서 낯선 사람들과 왁자지껄하게 새해를 기다릴 테고, 어떤 이는 소중한 지인들과 따뜻하게 맞이할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이불 속에서 꿀을 상자째로 까먹으며 미뤄왔던 드라마를 몰아볼 테고, 어떤 이는 재즈로 편곡된 찬양을 들으며 진한 코코아한 잔으로 한해를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락교회의 소중한 가족들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2019년 한해를 감사함으로 보내셨는지, 또 다가오는 2020년도를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맞이하고 계실지! 여쭙고자 주일에 온종일 직접 발로 뛰면서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았습니다. 준비한 영상과 메모를 통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QR코드스캐너'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취재·정리 우대권 편집위원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경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둘째 아이의 대학 입시를 마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리기 위해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훈련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느꼈던 불안함과 초조함이 나의 욕심과 믿음의 부족함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위해 마음과 몸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고, 전도 현장에 갈 때도 등 떠밀리듯 나가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할까’라는 교만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전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며 그렇게 할 거면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라는 호의를 베푸는 상황인데 혼을 내시는 권사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인데, 제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회개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전도는 선택이 아닌 본분이라고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전도 현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락교회 병원전도팀은 10개의 대학병원에서 3~10명의 전도자들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병실을 방문해 방문 목적과 신분을 밝힙니다.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뒤, 환자가 허락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 40명이 현장에 나가 80명에서 150명까지 전도하는 경우에 복음의 결실률은 60% 이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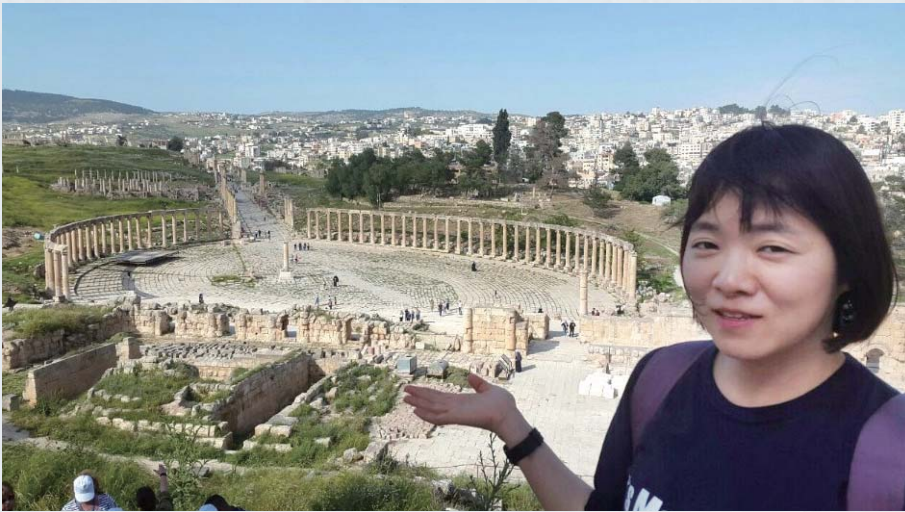
전도를 나가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를 거

부하거나 비판하시는 분, 냉랭하게 대하시는 분, 거절을 못 하시는 분 등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고 싶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들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한번은 60세의 신실한 모태 불교 여성을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 주기는 했지만, 자신의 종교를 바꿀 수는 없다며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일주일의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그분은 영접을 거절했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제가 다른 구역에 가게 되어 끝내 전도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 주가 지난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전도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거절당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도자가 그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 요르단 단기선교를 마치고



김주미 집사
노원교구
자유인예배부 교사

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요르단으로 6개월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버거웠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 막연한 마음이 단기선교를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마침 아는 분들이 요르단에 있었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요르단은 치안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낯선 이방인인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요르단은 요르단인 30%, 팔레스타인 난민 60%, 그 외 이라크 난

민과 시리아 난민으로 이루어진 피난민의 땅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 이라크 난민 청소년을 비롯해서 시리아 가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스스로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데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게는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외향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말도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용기도, 남의 집을 찾아갈 용기도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그



냥 문밖을 나서기만 해라. 집에 숨어있지 말고 밖에만 있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니 집 앞에서 만나는 친구, 길에서 만나는 친구, 버스에서 만나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 중 17살 아기엄마가 있습니다. 그녀는 천막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날 때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아랍어 두 마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구원자이셔”라고 말해주었고, 그녀는 신기하게도 아주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슬림에게 이런 일은 흔치 않은데 말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곧장 그곳 선생님이 자매를 방문했고 복음을 깊이 있게 나누고 성경을 읽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요르단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첫째, 무슬림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나 동행함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임을 배웠습니다. 셋째, 한 영혼의 소

중함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슬림 중 복음에 반응하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선교지에서 만난 분들의 영혼만큼 내 주변 분들의 영혼도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외롭게 살고 계신 고모가 생각났습니다. 고모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교회에 가기 어려워합니다. 고모를 방문해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생명대각성운동을 기회 삼아 매주 방문해 말벗도 되어드리고 말씀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잠시 고민해 보았을 때, ‘아!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도록 조금이라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만남**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2:14)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 소외된 어린이들을 섬기는 청년봉사팀



사회봉사부 청년봉사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정미 집사(종로·성북교구)는 강남드림빌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다 눈물을 글썽였다. 20년 전 청년부 시절부터 함께해 온 12명의 봉사팀이 자비를 들여 힘들게 이들을 섬겨오다 3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의 소속팀이 되어 새롭게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우 집사는 청년 시절 청년부 소속 특수선교부 일원으로 강남보린원(강남드림빌 전신)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몇 년 전까지 청년부에서 꾸준히 지원했으나 최근에 이르러 팀원들이 자비로 섬기고 있었다. 이제는 40대가 된 12명의 봉사자는 청년부부터 함께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매일 첫째 주일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강남드림빌로 향한다. 우 집사는 남편과 함께 먹을거리 준비를 담당하고 있다. 직장 일을 마치고 서둘러 장을 보아 재

료를 준비해 주일에 함께 나눌 점심을 직접 준비한다. 다른 팀원들 역시 각각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미술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돕고, 고학년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등 나름의 중요한 역할도 한다. 남자 봉사자들은 운동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강남이면 서울에서도 잘 산다는 지역인데 처음 갔을 때 열악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보일러도 없었고 더운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남보린원은 개인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 손발이라도 씻겨주려면 일일이 물을 데워야 했고, 턱없이 부족했던 먹을거리와 학용품을 충당하기 위해 종종대며 뛰어다녔던 그 시절은 그리 먼 시간도 아닌 2004년이었다. 부의 상징 같은 강남구에 보린원이 있고, 아이들이 또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현실에 놀라고 또 놀랐다. “저희 힘

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끼며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팀 청년들이 서로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뭉치면서 동지애와 우정이 탄탄했지요.” 우여곡절을 믿음과 기도로 넘겨왔고, 지금은 세 쌍의 부부가 봉사팀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다.

강남보린원은 몇 년 전 강남구청 소속으로 편입되면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좀 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다. 아이들은 앞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주방과 식탁뿐 아니라, 기타 변화될 많은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던 중에 우연히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 사회봉사부를 소개받았습니다. 부장 나선환 장로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 무척 놀랐습니다. 저

는 학생 때부터 영락교회 교인으로 지냈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부서가 있는 줄을 몰랐고,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며 어려움을 견뎌낸 봉사자가 있는 줄 모르셨답니다.” 사회봉사부 임원들은 바로 강남드림빌을 방문했고, 우 집사 등 강남드림빌 봉사자들이 사회봉사부 청년봉사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연결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 집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거듭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남드림빌을 향한 청년봉사팀의 소망은 ‘더 많은 봉사자의 참여’이다. “갓난아이부터 고3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함께 있는 만큼,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인 이들은 새로운 삶을 위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 조연자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경험을 나누어 주실 분들도 기대한다. “아이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 줄 20대 30대도 필요하고, 삶의 역정을 보여주실 40대 50대 봉사자들도 꼭 계셔야 합니다. 저희는 미약하나마 우리들의 손길이 미쳐서 서로가 협력해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곳이 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각자 교회에 다녀오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만남**

취재 이재향 기자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한 제언

『만남』 지면을 빌려 지난 3개월간 자원봉사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관련 캠페인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1회 캠페인 주제는 교회 주차장 관리의 어려움과 주변 유료 주차장 이용 안내에 많은 성도들이 호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은 새가족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양보하고 장시간 주차하실 경우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2, 3회 캠페인 기사에서 소개된 교회 곳곳의 청결 유지를 위한 환경미화, 교회 안내데스크와 관리·지원 서비스 현황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모습에서

신앙공동체의 밝은 미래 모습을 봅니다.

자원봉사부에서는 2020년 새해에 보다 많은 성도들께서 자원봉사 사역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사역의 저변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놓고 성도들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① 봉사관·벨엘·교육관 앞 지상 주차장을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현재 교회 정문에서 교육관 앞에 이르는 지상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규모는 약 40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한정된 차량 주차 편의에 비해 성도들이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차량 이동 동선과 주차 공간을 피해 다니는 불편은 훨씬 큼니다. 지상 주차 공간의 일부를 성도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상주차를 없애자는 제안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로하신 성도,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향존직 후보자 6개월 의무봉사 도입과 관련된 의견

교통, 환경미화, 안내 등 꼭 필요한 봉사의 자리에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적어도 100명의 손길이 필요

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인원의 지속적 확충 없이 봉사자의 수가 계속 줄어든다면 유급 직원을 채용해서 맡겨야 하는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분들(향존직 후보자)의 자발적 봉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③ 젊은 봉사자 참여 증진 방안: 육아돌봄서비스와 근로 장학제도 확대

젊은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주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육아돌봄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과 청년들의 봉사 참여 독려를 위해 현재 교통 봉사에 일부 도입하고 있는 근로장학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남**

교회의 원칙과 질서를 준수하는 서무행정

“여호와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역대하 29:35)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7~9월 교역자 및 직원 생일축하예배를 친교팀에서 섬겼다.

서무부(부장 신은정 장로)는 행정처가 구매하는 교회 살림의 모든 지출과 교역자 및 직원의 급여 지급, 복지 지출, 교회 내 각 건물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을 담당한다. 이 모든 재정지출은 한 주 평균 40~50건에 이르는데,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 교회가 보다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서무부는 친교팀과 재물관리팀, 시설관리팀, 구매대여팀 등 4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친교팀은 짝수 달 금요일 아침 7시부터 한경직목사기념관 지하에 차와 떡, 과일, 간식을 차려 교역자와 직원들의 생일 축하 모임을 준비한다. 재물관리팀은 교회가 소유한 각종 재물의 등록과 확인, 보존·폐기·불용처리 등

의 관리, 구매한 비품과 장비의 등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재물관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교육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재물을 조사해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시설관리팀은 교회 내의 각 건물과 시설 유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족하고 고장 난 시설들을 고치고 보완하는 일을 맡고 있다. 구매대여팀은 교회 내 제직부서 및 부속기관의 비품 및 장비 구매 내역서를 기록하고 새로 구매한 비품의 확인과 바코드 부착 작업, 관리대상 대여비품 현황을 관리한다.

서무부의 모든 사역자는 교역자를 지원하고 직원을 도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오늘도 매진하고 있다. **만남**

저녁기도로 드리는 교회창립 감사예배



11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창립74주년 기념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찬양대가 이 행사를 음악회가 아닌 음악 예배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다른 무엇이 아닌 예배에 담아드리고픈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그날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 부르심과 응답이 이번 음악 예배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 예배의 부름

가장 먼저 떠오른 찬송은 “예부터 도움 되시고(71장)”로 이번 예배의 입례찬송으로 선정했으며, 오르간 전·후주 역시 이 찬송 선율(St. Anne)을 기초로 만든 곡을 연주합니다. 전주곡을 미리 정해 알려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단순히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이날의 예배와 그 메시지에 대해 함께 마음과 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찬양대의 입례송(introit)은 르네상스 시대 영국 작곡가 R. Farrant의 “오 자비하신 구주여(Lord, for thy tender mercy sake)”로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며, 악한 길을 떠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구를 담은 찬양으로 온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며 한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구주여, 나의 죄를 기억 마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를 떠나서 주의 도를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 무궁히. 아멘.



백정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 시편의 고백

입례찬송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다 함께 찬양한 후에는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두 개의 시편 찬양과 두 개의 성경 봉독이 번갈아 이어지는데, 첫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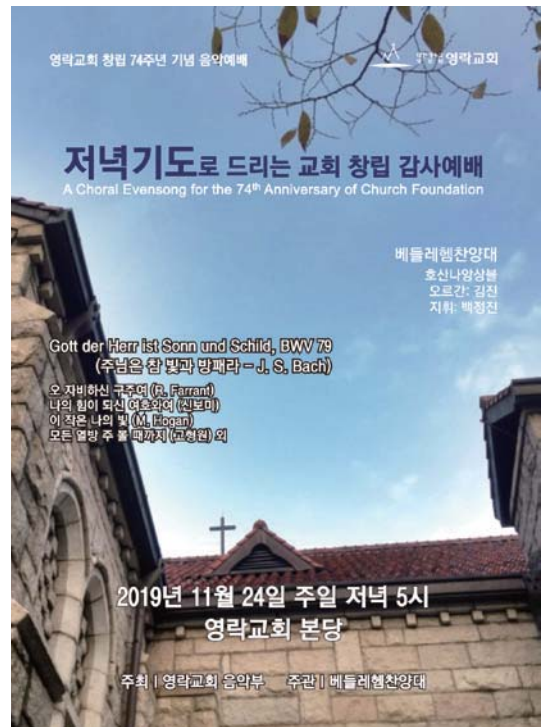
편가는 121편(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이며, 두 번째 시편가는 18편(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시편 가사가 품었던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은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 말씀으로의 초대

두 번째 성경 봉독 이후에는 바흐(J. S. Bach)의 칸타타 BWV 79와 설교가 함께 이어집니다. 바흐가 성토마스크회에서 매주 작곡하던 칸타타는 예배를 떠나서는 설명 불가능한 진정한 예배음악입니다. 당시 예배에서 칸타타가 설교 전, 후로 연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그 예배의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79번 칸타타(Gott, der Herr, ist Sonn und Schild)는 종교개혁일 예배를 위한 곡으로 “우리의 빛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강하나,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합창과 레치타티브, 아리아, 코랄 등 다양한 양식의 악장들로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의 최전선을 살았던 당시 독일 교회의 고백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팀파니를 비롯한 악기들의 연타음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공표했던 95개 조 반박문의 현장을 연상시키듯 가슴을 울리며, 처절했던 30년 전쟁을 마치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모든 예배에서 부르고 있는 “다 감사드리세(66장)”의 선율이 3악장에서 힘차게 울리는 것도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 부르심과 응답

인도자와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올린 후에는 시



편 150편(J. Rutter)과 흑인영가 “이 작은 나의 빛(This little light of mine)”, 그리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 개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빛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소박한 소원에서 시작해 온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마침 찬송은 “교회의 참된 터는(600장)”입니다. 1절의 가사로 이 음악 예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친히 이 교회의 터가 되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만남**



아기예수 탄생의 의미를 가족과 함께 되새겨보세요

성탄절이면 TV 채널마다 ‘훈훈한’ 영화들이 앞다퉈 특집으로 편성된다. 하지만 막상 영화 목록을 살펴보면 “왜 이런 영화를 성탄절에?”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성탄절 영화로 해마다 단골인 ‘나 홀로 집에’는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뒤 홀로 집에 남은 꼬마의 얹치락뒤치락 소동이 핵심이다. 이 영화의 키워드는 ‘휴가’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다. 4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34번가의 기적’ 이래 수없이 많은 성탄절 영화가 나왔지만,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담은 영화는 손꼽을 정도다.

이번 성탄절, 가족들과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영화를 찾아보았다. 사랑과 평화, 감사를 담은 휴머니즘 영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실체적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재현한 영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이다. DVD로 출시되었거나 영화 관련 포털서비스 등에서 VOD로 볼 수 있다.

위대한 탄생

The Nativity Story (2006)

101분, 전체관람가

감독 : 캐서린 하드윅

출연 : 케이샤 캐슬 휴, 오스카 아이삭,
히암 압바스 등

예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그려낸 기독교 영화. 로마제국의 식민지인 유대는 헤롯왕의 가혹한 통치로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목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하며 세상을 구할 메시아임을 예언한다. 약혼녀의 임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긴 여정을 시작한다.



크리스마스캐럴

크리스마스캐럴

A Christmas Carol (2009)

애니메이션, 96분, 전체관람가

감독 : 로버트 저메키스

출연(목소리): 짐 캐리, 게리 올드먼, 콜린 퍼스

찰스 디킨스의 유명한 소설 '크리스마스캐럴'을 원작에 충실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옮겼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크루지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비참한 인물이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에벤에셀(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 크리스마スイ브에도 그는 가난한 직원을 쥐어짜며 냉기 감도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조카 프레드가 성탄절 식사에 초대하지만, 그는 조카를 내쫓고 집으로 향한다. 그 날 밤 스크루지에게 옛 동업자 제이콥이 온몸에 쇠사슬을 찢찢 감고 나타난다. 스크루지 못지않게 야박하고 냉혹했던 제이콥이 “너는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영혼이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준다. 자신의 탐욕이 빚어낼 비참한 결말을 본 스크루지는 지옥 길로 가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빈다.



위대한 탄생

크리스마스 아침,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직원의 어린 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돈을 준다. 스크루지는 여생을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살아간다. 영어 더빙은 짐 캐리(스크루지), 콜린 퍼스, 게리 올드먼 같은 명배우들이 맡았다. 명확하고 아름다운 대사가 영어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영화다.

폴라익스프레스

The Polar Express (2004)

애니메이션, 100분, 전체관람가

감독 : 로버트 저메키스

출연(목소리): 톰 행크스, 마이클 지터 등

환상특급을 탄 듯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예수 탄생과 믿음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정과 용기, 평화, 사

량이라는 성탄의 정신을 휴머니즘으로 녹여낸다. 성탄절 전날 밤 소년은 침대에 누워 산타의 썰매 소리를 기다린다. 자정 5분 전, 방이 흔들리며 천둥 같은 기적 소리와 함께 소년의 집 앞에 거대한 열차가 선다. 북극으로 가는 길에 소년과 친구들은 수많은 장애를 만나지만, 용기와 우정을 배우며 이를 극복한다. 성탄절 아침,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성탄 트리 아래 놓인 선물을 발견한다. 차장 목소리는 할리우드의 ‘국민배우’ 톰 행크스.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

The Nutcracker and the Four Realms (2018)

99분, 전체관람가

감독 : 라세 할스트롬, 조 존스톤

출연 : 키이라 나이틀리, 매켄지 포이, 헬렌 미렌, 모건 프리먼 등

발레로 유명한 ‘호두까기 인형’을 모티브로 환상적 요소를 더했다. ‘폴라익스프레스’가 소년을 주인공으로 했다면 이 영화는 소녀가 주인공이다.

클라라는 얼마 전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인 달걀 공예품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찾아 나선다. 선물 포장 안에는 엄마가 쓴 쪽지가 들어있다. 달걀 공예품 안에 클라라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아빠와 함께 대부 드로셀마이어의 크리스마스이브 파티에 참석한 클라라는 황금 실을 따라 크리스마스 숲이라는 마법 세상으로 들어간다. 호두까기 병정과 함께 3개의 왕국을 지난 클라라는 마지막 제4의 왕국을 찾아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평화를 찾아준다. 마침내 열쇠를 찾아 달걀을 열었다. 클라라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량강도 아이들(2010)

95분, 전체관람가

감독 : 정성산, 김성훈

출연 : 김환영, 주혜리, 유윤상 등

한국 영화 중 성탄절을 소재로 한 영화는 드물다. 혹어도 방종이 허락되는(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도 이날은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었다) 특별한 휴일 정도로 그려진다. 북한을 탈출한 자유인 정성산 감독의 이 영화는 그 동안 한국 영화들이 놓쳐왔던 성탄절을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량강도 삼지연군 보천보의 한 마을, 북한에서도 벽지이자 오지인 이곳에 가난한 홀어머니와 종수, 종성 형제가 살고 있다. 인민학교 4학년 종수는 평양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 하지만 종수를 비롯한 ‘겉보기 안 좋은’ 아이들은 평양에 출입할 수 없다는 교장 선생님 지시에 종수의 꿈은 좌절된다. 평양에 가고야 말겠다며 길을 나선 종수는 뜻밖의 횡재를 한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서울에서 북한으로 날려 보낸 산타의 애드벌룬을 주운 것이다. 아이들은 로봇과 산타 옷에 열광하고 온 동네 어린이들이 로봇을 구경하기 위해 종수네 집으로 몰려든다. 난데없는 성탄 선물의 출현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취재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시몬, 제3의 길을 찾은 사람



신약시대에 시몬은 흔한 이름이었다. 예수의 형제 중에도(마 13:55; 막 6:3) 있었고, 열두 제자 중에도 두 명이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름이 같은 두 제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했다. 한 제자에게는 “베드로”(마 4:18; 막 3:16)라는 별명이나 “바요나”(요나의 아들, 마 16:17)와 같은 인척 관계의 표현을 붙였고, 다른 제자에게는 “가나안인”(마 10:4; 막 3:18)이나 “셀롯인”(눅 6:15 행 1:13)같이 출신 또는 소속을 표시하는 말을 붙였다.

시몬의 사람됨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성경에 힌트만 보인다. 그가 열심당(셀롯인들) 출신이라는 것이다. 열심당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집단이었다.

당시 로마제국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황제 숭배였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폭력 투쟁을 벌였는데, 그것이 매번 로마의 무력에 의해 무너지자, 폭력 투쟁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열심당을 조직하여 로마인에게는 물론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에게도 잔혹한 공격을 가했다. 그런 조직에 속한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상반된 두 가지 양상을 띤다. 하나는 과거와의 단절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직업을 떠났다. 마태 역시 세금공무원직을 그만두었다. 마태의 경우 로마를 대신한 세금 징

수는 베드로의 직업인 어업과 달리 매국 행위와 같은, 수치스러운 직업이었다. 따라서 마태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라는 의미를 띤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과거와의 연속성이다. 이들은 모두 로마 황제가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를 따를 때도 바로 그가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면 시몬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열심당을 떠났다는 점에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있었지만, 메시아 왕국의 수립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그런 기대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시몬이 계속 예수의 제자로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비폭력 투쟁도 아니고 폭력 투쟁도 아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이 분명하다.

이 길과 저 길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제시하시고는 한다. 우리의 삶에 결정적 또는 치명적인 경우일수록 더욱 그렇다. 한때 로마제국에 순응했던 세리 마태와 한때 로마제국에 폭력으로 맞섰던 열심당 시몬이 함께 예수를 따라갔다. 각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만남**

12월의 상영작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라이온 킹 (The Lion King, 1994)

1일



감독 : 로저 알러스, 롬 민코프

주연 :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 매튜 브로데릭

상영시간 : 1시간 30분 등급 : 전체관람가

어린 사자 심바는 친구 날라와 놀며 정글의 왕인 아버지 무파사에게 자연의 법칙을 배우고, “빨리 왕이 되고 싶어”를 노래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왕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왕의 동생 스카가 “대비하라”라는 노래를 부르며 반역을 꾀한다. 그는 하이에나들과 먼저 결탁한 뒤 심바를 이용해 왕을 살해한 뒤, 그 죄를 심바에게 뒤집어씌운다. 심바는 하이에나들의 추격과 자신이 저지를 죄를 피해 달아난다. 사막에서 죽을 뻔한 심바는 자신을 구해준 티몬, 폼바와 함께 살며, 자신의 과거와 고향을 잊으려 한다.



(상) 8일

(하) 15일

왕중왕 (King Of Kings, 1961)

감독 : 니콜라스 레이

주연 : 제프리 헨터, 시오반 맥켄나, 허드 헛필드, 론 란델, 비브카 린드포스, 로버트 라이언

상영시간 : 2시간 51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로마의 침략으로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성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리라는 것이었다. 구세주가 나타나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믿고 따른다. 그러나 그는 평화와 사랑과 화해에 대해서만 말할 뿐, 로마인들을 친다거나 하는 폭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다. 그가 세우려는 왕국은 세속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말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Joyeux Noel, 2007)

22일



감독 : 크리스티앙 카리옹

주연 : 다이앤 크루거, 벤노 퓨어만, 기욤 카네, 게리 루이스, 다니엘 브릴

상영시간 : 1시간 55분 등급 : 15세이상관람가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독일, 프랑스, 영국군의 숨 막히는 접전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영국군이 백파이프를 연주하며 잠시나마 전장의 긴장을 늦추고, 이에 뒤질 세라 독일군도 노래로 화답하며, 크리스마스 단 하루를 위한 휴전 협정을 맺는다. 그들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을 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한다. 적이 아닌 친구로 크리스마스를 맞은 그들은 과연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29일

시스터 액트 (Sister Act, 1992)

감독 : 에밀 아돌리노 주연 : 우피 골드버그

상영시간 : 1시간 40분 등급 : 전체관람가



리노의 카지노에서 삼류 가수로 일하는 들로리스는 우연히 암흑가의 거물인 빈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다. 잡히기만 하면 당장 목이 비둘기 이 피꼬리는 그 순간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다. 경찰에 신고한 들로리스는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보호를 받는데, 경찰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 외부와 단절된 수녀원에 들로리스를 숨긴다. 원장 수녀의 엄격한 감시 하에, 은신 중이기보다는 감화소에 들어왔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말쑥부림 지내던 어느 날, 성가대의 지휘봉을 넘겨받게 된 들로리스로 인해 성가대와 수녀원 전체, 아니 카톨릭 전체의 운명이 뒤바뀌기에 이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9월 1일~10월 13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9월 1일	윤예라	16	000
9월 8일	노현수	14	000
9월 21일	장윤수	07	012
	김영숙	07	012
	김상초	06	047
9월 22일	박가원	14	064
	정 매	05	027
	진화원	07	012
	김광영	10	033
	권선헌	02	038
	조현범	09	063
	박지성	01	000
	이온유	17	054
9월 26일	박도혜	02	068
9월 29일	신태수	16	000
	김선자	07	000
	손용식	04	032
	연지영	04	012
	용제웅	04	081
	박영지	16	000
	한아름	10	022
	김인아	06	075
	하재슬	09	054
	이호현	06	014
	조은후	05	034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9월 29일	박선우	04	040
	신유리	13	003
	김시온	14	032
10월 2일	임서윤	05	007
10월 6일	최용근	03	000
	박영자	15	019
	한두선	04	058
	안선미	03	000
	백환희	16	000
	김진언	06	017
	이동근	05	000
10월 8일	석영선	07	022
	이신원	14	000
	노 휘	14	000
10월 13일	김형순	04	000
	서광욱	10	000
	박재필	09	000
	신영숙	18	000
	최우영	18	000
	김경애	07	000
	김희경	03	000
	정영훈	03	000
	추다은	14	000
	강동훈	05	000

영락교회와 CTS가 함께 한 2019 대한민국 성탄축제



우리 교회와 CTS기독교TV가 공동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지난 11월 16일(토) 오후 5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성탄축제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며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예수 성탄을 통한 복음전파 사역을 선도하고자 마련됐으며, 우리 교회가 참여하기는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날 CTS-TV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성탄트리 점등행사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성탄메시지를 전하고 이철신 원로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총회 부총회장 김순미 장로, 서울노회장 권위영 목사,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교계와 사회 각계인사 등이 참여한 점등식에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이철신·김운성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당회원 뿐만 아니라 사랑부와 아동부 학생에서부터 청소년과 대학생, 국제예배를 섬기는 외국인

▶ 성탄 축제 버스킹 공연 일정

일 정	참가팀	소 속
13일(금) 오후6시	헵시바	문화선교팀
14일(토) 오후6시	임마누엘중창팀, 핸드벨, 시온중창팀	음악부
20일(금) 오후6시	팝밴드(플랜트)	문화선교팀
21일(토) 오후6시	베들레헴찬양대 및 바요나중창단	음악부
24일(화) 오후6시	마술/헵시바	문화선교팀
25일(수) 오후6시	스티그마/YMA	문화선교팀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대 통합의 의미도 담았다. 2부 순서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하음악회가 이어졌다. 방송인 김용만 집사(8교구)와 CTS 김인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축하음악회는 박신화 장로의 지휘 아래 갈보리·시온 연합찬양대가 중등부·아동부 찬양대와의 협연 속에 성탄 축하 찬양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한편 12월 13일(금)부터 성탄절 당일인 25일(수)까지 서울광장에선 버스킹(거리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공연이 6회에 걸쳐 펼쳐진다. ‘크리스마스 이즈 러브(Christmas is Love)’를 주제로 열릴 이번 행사에는 우리 교회 문화선교팀과 임마누엘·시온찬양대 중창팀, 베들레헴찬양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선교부와 전도부에서는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전도와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성탄축제 기간 중 진행될 버스킹 공연 일정은 표와 같다.

사진 이미혜 선임기자

아동부 연합찬양제 ‘리틀스타’



아동부 연합찬양제 ‘리틀스타’가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간에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초등부 찬양팀의 여는 찬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리틀스타’ 찬양제는 백성우 교육전담목사가 ‘아름다운 것들(시편 8:1)’이란 말씀을 전한 후 유년부와 초등부, 소년부 찬양대의 공연이 이어졌다.

아동부의 막내인 유년부 찬양대는 ‘사랑의 씨앗’ ‘난 하나님의 자녀’ ‘뜻을 세운 아이들’을 선보였으며, 초등부 찬양대는 ‘어찌 찬양안 하랴’ ‘나의 사랑하는 책’ ‘노래하며 뽀빠뽀’를 들려주었다. 계속해서 소년부 찬양대가 ‘키리에(Kyrie)’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로 찬양을 드린 후 유년·초등·소년부 연합찬양대가 ‘서로가’ ‘주님 기뻐 웃으시죠’를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제공 초등부

금요직장인예배 50주년 - “금요일 점심은 하나님과 드세요”



도심 속 직장인들에게 영적 충전의 장이 되어온 금요직장인예배가 창립50주년을 맞아 직장인 초청 선교잔치와 50주년기념 감사예배, 직장선교 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쳤다. 50주년 기념행사의 첫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18일(금)과 25일(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직장선교 세미나에선 방선기 목사(일터개발원 이사장)가 ‘크리스천 직장인의 소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10월 31일(목) 오후 7시 드림홀에서는 직장인 선교잔치가 열렸다. 400여 명의 직장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교잔치는 김운성 목사의 설교와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직장인예배 50년’, 직장인예배 찬양대의 찬양, 성악가 유정현 전도사가 이끄는 ‘내 영혼의 클래식’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운성 목사는 “앞으로 교회가 주말교회에서 주중교회로 확장되어야 하며 직장인예배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1일(금) 정오 선교관에서는 창립50주년기념 감사예배가 있었다. 신주현 목사가 ‘감사의 찬양이 시작될 때’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예배 후에는 그동안 직장인예배를 섬겨온 손길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하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정다은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한마음으로 하나 된 감사와 찬양 페스티벌

제2남선교회(회장 김무섭 안수집사)가 주관한 ‘감사와 찬양 페스티벌’이 지난 11월 2일(토) 오후 5시 30분 드림홀에서 열렸다. 제2남선교회 산하 18개 교구 지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감사와 찬양 페스티벌’은 1부 경건회와 2부 교구별 지회의 찬양 공연, 3부 심사평과 시상 순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1부 경건회는 윤의성 안수집사 사회로 해외선교팀의 찬양인도, 박성은 목사의 설교 후 김순미 장로(선교부장)의 축사, 김무섭 안수집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3지회(성동·광진교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지회별 찬양 공연은 마지막 6지회(강서·구로·양천교구)까지 18개 지회가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그동안 준비해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심사평과 시상으로 진행된 3부 순서에는 믿음상 1팀, 소망상 2팀, 사랑상 3팀, 기쁨상 4팀, 은혜상 4팀, 화평상 4팀 등 참여한 모든 지회에게 수상의 기쁨이 돌아갔으며, 특별히 믿음상은 5지회(관악·동작·금천교구)가 차지했다.

취재 정다은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추수감사절을 앞둔 지난 11월 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특별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6시(토요일 6:30분) 본당에서 열렸다. 누가복음 17:11~19절을 본문삼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새벽기도회에 선 김운성 목사가 '함께 하는 사람들', '그 분을 만나다', '아직 할 수 있는 한 가지', '갈 수 있는 마음', '깨끗하게 하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 순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말씀에서 '함께할 사람을 주심에 감사, 주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삶에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말씀이 임하여 응답하심에 감사, 말씀으로써 깨끗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 등을 언급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권면하며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히 대입 수능 당일인 11월 14일(목)에는 수험생을 위한, 다음세대의 축복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비전기도회와 수능기도회 열려



대입 수능과 취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하는 비전기도회가 지난 11월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50주년기념관 503호와 드림홀에서 열렸다. 1차 홍만우 목사(베드로부)와 2차 노대웅 목사(고등부) 인도로 열린 비전기도회에선 참석자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가도록 함께 간구했다. 한편 고등부(부장 김동욱 장로)에선 수능 직전 주일인 10일 '비전예배, 고3

축복의 시간'을 갖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하동균 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믿고 그동안 쏟은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자"고 기도했다.

수능 당일인 14일 벤엘기도실에서 열린 수능기도회에선 학부모와 교사, 중보기도를 위해 참석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자녀들이 수능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권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에릭 팬클럽, 사회봉사부에 이웃돕기 물품 기증



가수 겸 탤런트 에릭(본명 문정혁) 팬클럽 회원들이 지난 9월 22일(주일) 사회봉사부에 이웃돕기를 위한 물품(라면 50박스, 쌀450kg, 계란 200개)을 기증했다. 우리 교회 성도인 에릭과 그의 팬클럽에서는 매년 사회봉사부를 통해 쌀과 라면 등의 물품을 기증함으로써 이웃돕기 선행을 펼치고 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월드비전, 해피하우스, 네팔인 쉼터 등 유관기관과 교회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제공 사회봉사부

영락역사자료

기증자 명단 및 기증사료 내역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허명욱 권사 (안양·수원교구)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직 목사 설교 일반음성 테이프 11건 - 임영수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37건 - 이철신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103건 - 기타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127건 - 기타행사 관련 일반음성테이프 48건 - 기타행사 관련 CD 5건 - 영락교회 후보 68건 - 한경직 목사 관련 VHS 2건 - 기타행사 관련 VHS 2건 - 만남지 등 도서관행물류 104건 - 영락교회 행사 팸플릿 등 박물류 8건
무명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락사회복지재단 소개 팸플릿 1건 - 한경직 목사 설교문 핸드북 1건
김도정 은퇴권사 (인천교구)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락교회 35년사 1건
공주희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초등부 배지
오경삼 은퇴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 인천외항선교회 간행물 1건
임연희 권사 (강남교구)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8월 만남의길 2건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한진유 은퇴장로 (성동·광진교구)	9/10 17	- 2017년~2019년 정책당회 책자 3권 - 1945년~2015년 영락교회 연혁 정리 문서 - 한경직 목사 해외여행 연도별 정리 문서
이인수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10/4	- 1981년 박조준 목사 예화모음 외 도서간행물류 12건 - 특별새벽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외 시청각류 26건
신서영 집사 (용인·화성교구)	10/4	- 2007년 교육자 대회 문서 외 문서류 6건 - 빌리그레이엄 한국 전도대회 특집화보 1건 - 1990년~2007년 교육부 관련 사진 281건 - 1985년 창립 40주년기념 체육대회 메달 외 박물류 6건
김영대 은퇴장로 (중구·용산교구)	10/6	- 제 24회 당회 세미나의 도서간행물류 2건
조의숙 은퇴권사 (성남·분당교구)	10/6	- 1950년대 영락교회 관련 사진 6건
하순지 권사 (중구·용산교구)	10/6	- 1980년대 금요정오예배 관련 사진 5건
전인호 은퇴안수집사 박태순 은퇴권사 (고양·파주교구)	10/27	- 1972년 6월 18일 한국일보 일요판 1건 - 1961년 김상도 권사 취임 임명장 1건

2019년 1월~10월 전체 기증현황

입수처	형태별 사료 건 수						총합
	문서류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간행물류	박물류	신문류	
개인 (22)	76	295	598	244	29	1	1243
무명 (2)				2	1		3
합계	76	295	598	246	30	1	1246

사료를 기다립니다

1. 2000년대 이후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순서지

2.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제직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등

문의 : 역사자료실 ☎ 02)2280-0357

12월 토요음악회

토요일 오후 6시, 선교관

7일	제1회 할렐루야찬양대 토요음악회
21일	제4회 IEF 연주회

토요음악회는 크리스천 음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연주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공 음악부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11월호 정답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날말풀이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각 줄의 단어를 맞춘 후 전체 문장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성탄 보내세요~~

믿음의 조상

구약 중, 가혹한 시련을 견딘 인물의 이야기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떠나지 말라고 명하신 지역

모세의 후계자

구멍 뚫린 겨울철 난방 연료

유일한 아들

해질 무렵, 하늘이 붉게 보이는 것

축복 기도

새해 복을 비는 인사말

출애굽할 때 육지가 된 바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사람

목회력

12月

1일(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창립74주년, 임직식, 원포인트교육주간
6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하반기 종강
7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8일(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사랑부예배 성찬, 찬양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제직회, 원포인트교육주간
15일(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원포인트교육주간
22일(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유아세례식, 심방준비회,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교육주간
24일(화)	성탄절음악회
25일(수)	전세대가 참여하는 성탄예배
29일(주일)	은퇴식



편집장 레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이 왔습니다. 가는 해는 아쉬지만, 12월 『만남』은 꿈과 소망을 가득 싣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생명대각성운동’의 결산과 대강절과 성탄절 특집, 2019년을 보내며 성도의 기억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QR코드를 이용한 동영상 그리고 다양한 간증문과 문화광장은 그것을 대신합니다. 부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남』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상(無常)한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고 성숙되어야 하겠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르기 위한 인간다운 생성의 과정입니다. 또한 ‘변화’는 하나님 뜻에 대한 모순과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만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성과 결심만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변화의 결실을 구현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만남』은 교회의 소식지로서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정론지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들 그리고 만남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신 편집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야(除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비상(飛上)하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자 합니다. 가는 해가 아쉬운 것은 한편의 통설(通說)일 뿐….

편집장 이동훈

2019 성탄축하음악회

예수탄생

김신웅 작곡



지휘 조성환



피아노 김우경



오르간 김진

오케스트라 알테 무지크 서울



소프라노 전해리



알토 김미경



테너 박승희



베이스 심성민



베이스 김서원

2019년 12월 24일(화) 19시 30분

장소: 베다니 홀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주관: 영락교회 갈릴리 찬양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동판화, 11×7cm, 1523

사도 시몬

The Apostle Simon

셸롯인 시몬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전승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톱에 썰려 순교했다는 것이다. 그의 초상화에는, 위에 보이는 뒤러의 동판화처럼, 대부분 후자의 전승이 반영되어 톱이 등장한다.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는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이탈리아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면서 유럽의 북부와 남부에 걸쳐 널리 명성을 얻었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루터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작품에는 판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위 동판화는 그가 마지막으로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거주하는 동안에 만들어졌다.